

제2차 사회교육 심포지움  
**삶의 질과 사회교육**

**삶의 질과 사회교육**

김경동/서울대 교수

**사회교육과 자아실현**

차경수/서울대 교수

**사회교육과 가정복지**

박종삼/송전대 교수

**사회교육과 지역발전**

최일섭/서울대 교수



## 2. 삶의 質과 社會教育

金 璟 東

(서울대 교수)

### 1. '잘살기 文化'의 虛實

'잘살아 보세', '우리도 잘살 수 있다', '이제는 잘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 풍기는 마력에라도 홀린 듯 우리는 결눈질할 겨를 없이 앞만 보고 치달으며 지난 한 세대를 정신없이 지내 왔다. 개발(開發)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거침없이 향해간 탓에 이제는 해마다 찾아들던 보릿고개의 공포도 사라져 가고 웅어리져 맏힌 가난의 한(恨)도 서서히 풀어지려는가, 번영의 서광이 수평선 너머로 비쳐 오는 듯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 실지로 '잘산다'는 어휘가 입 속에 맴도는 감촉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도 될 처지의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살아가는 일반적인 형편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겨우 평균 5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며, 열 사람 중 넷은 현재의 생활이 불만스럽다고 털어놓는다.<sup>1)</sup> 이와 비슷한 조사결과는 몇 해 전에도 얻은 적이 있고 그 사이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힘껏 이룩해온 고도경제성장으로 생활양식이 변하고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비친 삶의 질적인 상태는 아직껏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공업화 도시화를 수반하는 외형적·물량적 변화는 그 나름의 부작용을 자아내고 있다. 그것들을 깡그리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대표적인 보기만 들어도, 환경오염, 교통지옥, 주택난, 콩나물교실처럼 삶의 환경적 조건의 문제에서 비롯하여, 청소년 범죄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조악화, 그칠 줄 모르

는 학원소요, 거둬하는 대형 금융사건 같은 사회문제에다, 고령인구의 소외며 각박해지는 인심 등 비인간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잘살기 문화’라 일컬을 수 있는 흥청거림의 늪에 빠져 삶의 질적인 가치와 참모습을 저버리거나 앎는가, 우려를 갖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속에 그러한 걸치레 삶의 이면에 도사린 질적인 향상에 대한 관심이 떠오른다는 사실은 주목해 마지않아야 한다. 이른바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전문가들의 손길을 크게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일반의 의식은 더욱 중요성을 띤다 하겠다. 이 모임에서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쟁점을 사회교육의 차원으로 연결시키려는 일차적인 뜻은 바로 그 쟁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호소할 통로가 거기에 있음이라 하겠다.

## 2. 아름다운 삶의 결<sup>2)</sup>

잘 산다든가 좋은 삶, 행복한 삶 같은 말은 워낙 주관성과 문화적 상대성이 개입할 소지가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어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행복보다는 불행과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규정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이도 있다. 인류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 문화의 보기들은 있어도 고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문화는 없다. 불행과 고통이란 인간이면 피하고자 안간힘 쓰는 것이라는 뜻에서 단일적인 성격을 띠며 다음과 같은 상태를 진정으로 즐길 리가 없다는 것쯤은 합의를 얻기에 어렵지 않다. 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 ② 사회적 부정의(不正義)와 억압 ③ 이단적인 믿음에 대한 탄압과 핍박 ④ 전쟁의 참혹한 피해 같은 것들은 누구나 마시고 싶지 않은 쓴잔일게 틀림없다.<sup>3)</sup>

그러나 비록 주관적 판단과 문화적 영향이 작용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소극적 접근보다는 한층 더 적극적이고 체계 있는 접근을 시도해 볼만하다. 워낙 생활의 질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공업선진국들에게 일기 시작한 환경보호론 또는 생태론자들의 생활 환경의 질적 피폐화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위한 주장에서 비롯하였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전이론과 서로 만나면서 새로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발전의 가치를 ‘삶의 가치’로 인식하고자 하는 데에서 찾아진다.<sup>4)</sup>

인간의 삶이 결단코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치요 목적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타고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아실현, 자아완성을 추구하는 삶이 곧 값진 삶이라는 가치이다.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그런데 근대화 이후 인류는 그 전시대에 갖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얻어 가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어느새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가짐의 혁명’(the Revolution of Having)으로 이룩한 공업·기술·물질사회의 소유의 가치가 존재의 참된 가치, 삶을 누림(being) 그 자체의 목적적·표출적 가치를 앞질러, 인간은 마침내 소유물의 노예로 전락하는 기치전도를 겪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소유의 핵심은 물질적 자원과 경제적 희소가치와 그것을 통한 육신적 쾌락이다. 그러한 삶에서는 권력, 금력, 성공, 지위, 성취, 보상, 우월성, 동조, 인기 같은 것에서만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삶의 신비스러움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우연과 신뢰와 무기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 버리는 성향이 짙다. 거기에는 버성김(소외)과 마음의 궁핍에 시달리는 고향 잃은 영혼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있음의 혁명’(the Revolution of Being)을 거쳐 인간으로서의 참된 해방과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주의적인 새 문명의 물결을 타야 할 계제에 이르렀다.<sup>5)</sup> 삶의 누림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음이어서는 의미가 없다. 한층 더 아름답고 고결한 ‘삶의 결’을 누림이다.

먼저, 물리적인 차원에서 공해로 찌들고 밀집하여 갑갑하고 북적북적 소란스런 삶의 환경 속에 삶의 결이 고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은 물질적·경제적 삶의 결을 풍요하게 하는 원초적 요건이거니와, 그런 자원이라 해도 무턱대고 크고 많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작은 데 아름다움이, 적은데 풍성함이 있을 수 있다. 물리적 자원은 인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크고 많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소지도 크다.

건강은 육체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마음의 건강이 더 값지다 할 수도 있다. 오늘날은 몸의 질병이 마음을 병들게 하기보다도 병든 정신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우환이 더 흔해진 세상이다. 소유의 시대는 향락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쾌락이란 육체적 즐거움뿐 아니라 정신의 기쁨도 뜻한다는 걸 잊어버린 시대이기도 하다. 지나친 육신의 향락은 몸과 마음을 모두 썩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은 육체적·정신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삶의 결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추구하고 이룩해야 한다. 가령, 원초적인 집단 생활에서 따뜻하고 인정스런 관계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지만 일하는 삶이 또한 즐겁고 인간화되어야 한다. 규모가 커져만 가는 조직체들과 지역공동체 속에서 무기력하게 자아정체의식을 상실하는 버성김의 삶이 질적으로 뛰어난 삶이랄 수 없다. 자아실현을 통한 공동체 목표에의 헌신몰입(commitment)으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문화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인간적인 문화가 꽃 필수 있다.

한편, 자원과 희소가치의 불공평한 불평등 배분은 인간을 불행하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삶의 기회(life chances)의 불균형은 자아실현에의 길을 가로막는 원천이다. 사회의 불정의는 인간을 꺾박하고 사회를 왜곡시킨다. 자유의 결핍은 인간을 숨막히게 하고 사회를 경색 하게 만든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삶은 기계나 인형이나 기껏해야 노예의 삶이다.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목소리도 표현하지 못하고 참여도 하지 못하는 삶은 허수아비 삶이다. 삶의 기회의 가치도 귀중한 삶의 가치이다. 아름답고 정교한 삶의 결을 얻자면 이와 같은 기회의 공정한 증대가 필수적이다.

삶의 가치를 이렇게 추상적으로나마 규정했을 때,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은 ‘깁사람’(the enlightened person)이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아완성의 삶을 이룩하는 깨우침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 사회교육의 참뜻을 발견하고, 삶의 질적향상과 이어지는 실마리를 찾는다.

### 3. 社會教育과 삶의 결

사회교육이란 성인교육, 계속교육, 평생교육, 비공식교육 같은 여러 이름을 가진 사회화의 한 특수 유형이다.<sup>6)</sup> 이 글에서는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을 주관자와 대상자(또는 수혜자)로 나누어 특징 지워 보기로 한다. 먼저 사회교육이 본디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학교라는 공식교육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사회의 교육기능이 더욱 복잡화 되는 과정에서 그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취학전 아동의 사회화는 그 주관자가 가족이었으나 이제는 갖가지 조기교육기관들이 참여하는

공식교육이 성하게 되었다. 게다가, 대중매체는 가정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중요한 교육기능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성인교육이란 관점에서 주로 사회교육을 접근한다 해도, 근자에는 그러한 교육과정의 공식화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준학교적인 주관자들이 우후죽순 마냥 생기고 있다. 대중매체의 구실은 이 범주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뿐 아니라, 이미 학교를 떠난 연령층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공식·비공식간에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학교가 취학적령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베푸는, 이른바 ‘법류에 의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다 해도,<sup>7)</sup> 엄격한 구획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취학 중인 어린이·젊은이들도 이와 같이 넓은 뜻으로 이해하는 사회교육의 사회화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교육은 삶의 질적 향상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분석적인 목적에서 다음의 세 가지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삶의 조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교육에의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둘째, 사회교육을 통하여 삶의 결을 개선시키는 수단 목적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회교육의 경험 그 자체 속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경험하는 용해의 관계가 있다.

### (1) 欲求의 계단과 社會教育

인간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마치 계단과 같은 위계서열(hierarchy)을 이룬다고 한다. 사람은 아래층 욕구를 충족하면 한층 더 높은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는 이치로서, 그 계단의 밑바닥 층에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가, 맨꼭대기에는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자리한다고 본다. 그 사이에, 아래로부터 자극(성적 충동 등)과 활동(일), 안전과 보장, 사랑과 소속감, 자아존중, 그리고 사회적 안정의 욕구가 차례로 자리잡는다.<sup>8)</sup>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지난 한 세대를 돌이켜 보건대, 사회교육에 대한 수요가 최근 몇 해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웬만큼 생계유지에, 일상적 과업에 급급하지 않아도 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생긴 계층의 사람들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욕구충족을 찾아 사회교육에 참여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범주의 사람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대체로 삶의 여건이 비록 경제적인 측면을 위주로 해서나마 개선되는 경험을 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사회교육과 같은 길을 밟아 한층 더 높은 욕구의 충족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삶의 결이 거칠어지는 방향에서 삶을 탕진하는 이들이다. 다른 한 범주의 사람들은 그나마 사회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의 대열조차 참여치 못하고 저변에서 기본욕구의 충족에 매어 달려 허덕이는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사회교육이란 하나의 사치요 거추장스런 짐일 수도 있다.

앞으로도 사회교육은, 그 주관자가 누구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러한 두 분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학교들과 대중매체가 이 일에 공익적인 안목에서 적극성을 띠는 게 마땅하다.

## (2) 삶의 質的 向上을 위한 社會教育

대체로 지금까지 사회교육 제공자나 수혜자,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을 일삼는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사회교육의 목표와 내용인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 목표는 국민의 자질을 높여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추상적인 공식적 목표에서부터<sup>9)</sup> 갖가지 현실적응적, 미래지향적, 목표들에까지 광범위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에도 보면 정신교양교육에서 비롯하여 각종 직업·기능교육, 취미생활교육, 건강교육 등 무척 다양하다.<sup>11)</sup>

그런데, 그러한 서술 속에 삶의 질적 향상에 관한 언급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피상적인 취급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 수혜자들은 그 구체적 교육과정의 내용이 보건교육이든, 육아교육이든, 꽃꽂이 강습이든, 기능교육이든, 교양문화교육이든, 그 어느 것이든 간에, 결국은 그들의 현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그리고 적어도 교육 주관자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목적은 현재적이건, 잠재적이건, 의식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을 줄 안다.

하지만, 성찰의 눈을 조금 더 날카롭게 뜨고 살펴보면, 그러한 목표는 다른 실제적 고려들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목표전치(目標轉置, goal displacement)현상을 꼬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회교육 수요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교육과정에서의 참여가 다름 아닌 순전한 과시효과를 노린 행위인



사례가 흔히 있다. 이것은 대중사회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타자지향성(他者指向性), 동조에의 강박관념, 유행추종심리, 매체의존효과에의 굴복 등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행위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가를 친교의 목적에 활용하는 한 수단으로 사회교육을 택하기도 할 것이다.

한편, 사회교육 제공자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성향에 편승하거나 그것을 역이용하여, 본래의 교육적 목적보다도 상업적 이득을 겨냥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회교육 기관들은 그 교육과정을 통하여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특정 조직체의 특정 목표와 이념에 동조하게끔 사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이 국가기관이든 기타 공공기관이든, 기업체이든 민간단체이든, 이런 식으로 사회교육을 자기네의 특수이념 교화에 이용한다면,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와 일치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사회교육은 그 주관자나 대상자 모두가 그것이 국민 모두의 삶의 결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주요 수단임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조직화하며 관리해 나가고자 애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교육의식 자체도 사회교육이 심고 키워야 할 내용임을 덧붙일 만하다.

### (3) 社會教育, 곧 삶의 質的 向上

사회교육이 진실로 삶의 가치와 완벽하게 만나는 모습은 사회교육 그 자체가 곧 삶의 질적인 향상을 경험하는 과정일 때 드러난다. 앞에서 우리는 삶의 기회가 골고루 확대되어 나가는 사회적 맥락에서 물질적·정신적 삶의 결을 한층 더 정교화 하는 자아실현의 삶이 참으로 보람된 삶이라 규정하였고,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 깬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뿐 아니라, 가짐의 혁명이 낳은 시대를 지나 바야흐로 누림, 있음의 혁명을 치러야 할 새시대로 나아가는 고삿길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바로 그 있음의 혁명에 따르는 사회를 특징 지우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교학의 사회’(敎學社會, the teaching-learning society)요, 또 하나는 ‘대화의 사회’(the dialogic society)이다.<sup>12)</sup>

가르치고 배우는 사회 또는 줄여서 ‘배우는 사회’(the learning society)란 ‘배움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침에 지루함이 없는’사회이다. 배움은 그 자체 하나의 주요 목적으로서 내재적·표출적 가치를 인정받고, 앎 그것 곧 기쁨이며, 지식의 습득과정 속에서 이미 일종의 완성감으로 충일하고, 간단없는 배움을 통해

개인은 자아완성을 경험하며, 생산적인 자아실현 과정에서 사회의 공공복지에 자발적·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룩하는 건전한 사회이다. ‘배우고 때에 따라 익히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공자(孔子)의 명언이 이를 압축해 주고 있다. 사회교육은 바로 그러한 뜻에서 그 본래적 가치를 찾아야 마땅하다. 모든 교육이 그러해야겠지만, 사회교육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워낙 지속적 교육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의 배움’이라는 이상이 그 이념인 것이다.

그와 같은 배움의 과정에서 강조할 덕목은 성실성과 호기심과 상상력과 창의성이며, 무엇이든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면 그 뿌리까지 캐어 보려는 결심과 헌신몰입의 자세이다. 그 배움을 경험하는 ‘배운 사람’, ‘깨우친 사람’, ‘교육받은 사람’(an educated person)은 어떤 자질을 갖추게 될까?<sup>13)</sup> 첫째, 지식에 대한 올바른고 성실한 자세를 지니는 사람일 것이다. 무슨 지식이든 습득하여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둘째로, 교육받은 사람은 갖가지 주요 인간사에 관하여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좋은 운치 있는 말로써 표현할 능력을 갖출 것이다. 셋째, 교육받은 사람은 도덕적·윤리적 판단력을 올바르게 습득할 것이다. 넷째, 교육받은 사람은 넓은 전망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그는 바로 배움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자질은 주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교육의 목표에도 넉넉히 적용할 만한 것이다. 자칫하면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내다버린 자질구레한 찌꺼기나 주워 모아 가르치는 것인 양 오인하기 쉽지만, 결코 그럴 까닭이 없다. 물론 사회교육의 내용은 비교적 가볍고 단기적인 훈련이나 참여로써 습득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응용 가능한 것들도 담는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질적 향상 과정으로서의 교육의 경험을 두고 생각할 때에는 차원을 이상적인 수준으로까지 높여 마땅하다.

위에서 앞으로 올 사회는 대화의 사회라 했거니와, 사회교육은 그 교육의 결과로 배운 사람이 된 이가 훌륭한 담론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으로써 대화가 열리고 질적으로 높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사회교육은 그 교육방법에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의 진행과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는 대화의 문이 막히고 줄이 끊어져 가는 대중통신의 시대이다. 이 각박하고 답답한 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결이

부드러운, 유연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거침없는 대화를 할 능력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길러야 하는 것이다.

사회교육의 ‘사회’적 차원을 그 방법에다 적용시키면, 참여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곧 교육적 경험이 되며, 그 상호작용 자체가 또한 즐겁고 만족스러운 표출적 상호작용이 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적 배움의 즐거움이나, 사회적 배움의 기쁨이 바로 사회교육에서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사회교육은 바로 삶의 결을 향상시키는 경험 그것이라 할 것이다.

#### 4. 社會教育의 擴充을 위하여-맺는 말

잘 사는 삶이란 그 삶의 누림이 곧 살찌고 결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라고 할 때, 사회교육은 그것을 북돋우고 키워줄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어야 한다는 논지를 펴 왔다. 현실적으로,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질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삶의 질적 향상과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는 사회교육은 앞으로 더 확충될 것이 틀림없다.

끝으로, 사회교육을 확충코자 할 때 깊이 고려해야 할 일 몇 가지만 되새겨 보기로 한다.

첫째, 사회교육의 대상을 확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할 것은 사회의 불리한 계층에게 그 혜택을 공정한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만 내어 맡기는 전략이 안고 있는 한 계는 극복해 마땅하다. 동시에, 사회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소위 지도층이 대개 사회 교육적 사회화에서 면제받는 게 일쑤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사회교육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참여토록 해야 한다.

둘째, 그와 같은 대상의 확충에 따라 교육내용도 다원화시키고 또 질적 충실성을 확보할 것이 요청된다. 사실, 사회교육의 내용이란 그 대상자의 수요와 주관자의 필요에 의하여 좌우될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요건 자체도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걸러 볼 것 같으며, 쓸모 없는 시간낭비가 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반면에, 당장에는 별 유용성이 없어 보여도, 진실로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게 허다할 것이다. 이 기회에 사회교육 내용의 재정

비를 위한 기초연구와 공동개발의 노력을 제창해 볼 만하다.

셋째로,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교육 주관자들을 밝혀 내고 찾아내고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 중에서도 대중매체와 지역사회 학교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들이 일차적으로 그 과업을 담당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각종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적 사회교육기관들에 대한 개괄조사와 협조를 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다원성이 풍부한 만큼, 거기에 완전히 무질서와 상업주의도 곤란하다. 상호간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확실성과 일방성은 배제해 마땅하다. 이런 원칙에서 출발한다면, 사회교육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아름다운 삶의 곁을 경험하는, 질적으로 값진 배움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되리라 믿어 마지않는다.

- 
- 1) 이 자료는 최근(1984년 10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표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 2) 나는 전부터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삶의 질’이라 표현해 오고 있다.
  - 3) Barrington Moore, Jr. 1972. Reflections on the Causes of Human Misery and Upon Certain Proposals to Eliminate Them. Boston : Beacon. 김경동 역, 1981. 「인간불행의 사회학」, 문예출판사.
  - 4) 이런 배경과 삶의 가치에 관한 논의는 즐저, 1979. 「발전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참조.
  - 5) 소유의 혁명, 존재의 혁명 등 개념은 Gustavo Lagos, 1981. "The Revolution of Being : A preferred world model." pp. 123-160. H. Munoz(ed.) From Dependency to Development. Boulder, Col. : Westview.
  - 6) 鄭00, 1984. “미래를 여는 사회교육.” 학교중심 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 pp. 117-126.
  - 7) 사회교육법 제 2 조 1항. 위의 책(학교중심 사회교육…), p. 191.
  - 8) A. H. Maslow.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 Harper & Row.
  - 9) 사회교육법, 제 1 조, 앞의 책(학교중심 사회교육…), p. 191.
  - 10) 정범도, 앞의 글.
  - 11) 鄭址雄, 1984. “사회교육의 내용”. 위의 책 pp. 127-132.
  - 12) Lagos, 앞의 글.
  - 13) oo, 1982. “현대사회와 대학“ 현대사회(여름) : 158~186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뜻과 그 논의의 출처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